

루리코지 절 오층탑

야마구치 시의 고잔 공원에 위치한 루리코지 절 오층탑은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지금의 야마구치 현을 다스리던 오우치 가문의 영주 오우치 모리미(1377~1431)에 의해 지어진 불탑입니다. 우아한 외관과 견고한 구조로 유명한 오층탑은 1442년경에 완성된 이후, 붕괴로 인해 재건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

지붕은 처마의 깊은 곡선을 강조하기 위해 노송나무 판을 여러 겹 겹쳐 올린 노송나무 껍질 지붕으로 탑 중심에는 지름 약 50cm의 굵은 심주(心柱)를 세워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오층탑의 높이는 31.2m로 기초가 되는 토대에서 최상부로 올라갈수록 각 층이 점점 작아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이렇듯 균형 잡힌 모습은 고잔 공원의 나무들과 어우러져 한층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야마구치 시내에서도 인기 명소인 이곳에서는 초봄에는 매화를 배경으로, 가을에는 다채롭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

오우치 모리미의 형인 오우치 요시히로(1356~1399)는 과거 영지를 지금의 와카야마 현과 후쿠오카 현까지 확장시켰을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닌 무사였습니다. 모리미는 형을 기리기 위해 오층탑의 건설을 계획했지만, 건설에는 수십 년에 이르는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탑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오층탑에는 헤이안 시대(794~1185)에 제작된 아미타불 목상과 오우치 요시히로의 동상이 안치되어 있으며, 오층탑 내부는 공개되지 않으나 밖에서 격자문 너머로 목상과 동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

루리코지 절 오층탑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, 나라 현의 호류지 절과 교토의 다이고지 절에 있는 오층탑과 함께 일본 3대 명탑(名塔)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.